

【10월의 문화인물 최항】

최항 선생의 생애와 주요 업적

최명재

사단법인 국어고전문학원 부이사장 / 최항 선생의 22세손

1. 최항 선생의 생애

최항(崔恒) 선생은 자(字)는 정보(貞父), 호(號)는 태허정(太虛亭) 또는 동량(幢梁), 군호(君號)는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 시호(諡號)는 문정(文靖), 본관(本貫)은 삭녕(朔寧)이다.

선생은 세종 16년(1434) 26세에 알성문과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함으로써 그 학문의 심박(深博)함이 인정되어 세종으로부터 방방일(放榜日)로 집현전(集賢殿) 부수찬(副修撰)에 특수된 이래, 세종32년(1450), 세종이 승하(昇遐)할 때까지 16여 년간을 집현전에서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였다. 훈민정음 창제에 관하여는 세종대왕의 특지(特旨)까지 받았고 집현전 8 학사들과 더불어 불철주야(不徹晝夜)로 노심초사(勞心焦思)하며 수석(首席)에서 주도(主導)하면서 세종25년(1443)에 훈민정음 창제를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훈민정음이 세종 28년에 반포된 후 동국정운(東國正韻), 자치강목(自治綱目), 통감훈의(通鑑訓義), 동국통감(東國通鑑), 경국대전(經國大典) 등 국가 통치의 근간(根幹)이 되는 많은 저술을 비롯하여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등 40여권을 찬술(撰述)하였고, 태허정 시집(詩集)에

는 200여 편의 각종 시문이 실려 있으며 2권의 태허정 문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저술인 서(序)·기(記)·좌목(坐目)·발류(跋類)·서류(書類)·표류(表類)·진류(箋類)·소류(疏類)·제문류(祭文類)·비명류(碑銘類)·찬류(贊類)·보유(補遺)·행적(行蹟) 등이 있다. 이 내용 중에는 어제서(御製序), 경서발(經書跋), 왕지서(王旨書) 국서표문(國書表文), 전문(箋文), 고문전책(高文典冊)의 진전문(進箋文), 임금과 왕실의 만장(挽章), 비명(碑銘), 제문(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조정의 웅문대책(雄文大冊)은 모두 선생의 손에서 나왔으며, 화인(華人)들도 항상 우리나라의 표사(表詞)가 정밀하며 적절하다고 칭찬할 만큼 선생의 문장은 장강대하(長江大河)와 같이 막힘이 없는 탁출(卓出)한 문장이었다.

또한 선생은 시문에도 능통하여 궁중종묘제례악(宮中宗廟祭禮樂)의 악장가사(樂章歌詞)까지도 작사하였고, 변려문(畊儷文)에 정통하는 등 문장의 재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의 임금은 선생을 ‘진천재(眞天才)’ 또는 ‘유웅(儒雄)’이라고까지 극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겸손 정직하여 선생이 서거(逝去)하심에는 조정의 사대부로부터 우동마졸(牛童馬卒)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며 애석해 하지 않았으며 탄식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선생의 시호(諡號)를 문정(文靖)이라 내렸으니 ‘도덕이 높고 박학다식(博學多識)하니 문(文)이요,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말이 적으니 정(靖)이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함에 있어서 원로들을 배제시키고 집현전의 소장(小壯) 음운학자(音韻學者)의 선임관(先任官)인 선생에게 특지(特旨)를 내린 것으로 볼 때, 선생의 학식과 덕망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하겠다. 세종이 선생을 아끼고 배려한 내용이 실록에 나와 있어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丁未副校理崔恒 前縣監鄭仲虔 有眼疾 命與典醫監正裴尙文 浴于平山溫井試

驗, '세종실록' 2권 92 세종23년(1441) 12월 9일 丁未條, 12월 초9일 부교리(副校理) 최항(崔恒)과 전현감(前縣監) 정중건(鄭仲虔)이 안질(眼疾)을 앓고 있으므로 전의감정(典醫監正) 배상문(裴尙文)에게 명하여 평산 온정(平山溫井: 황해도 평산 온천)으로 가서 목욕하여 안질이 치료되는지를 시험하게 하다.

이 실록의 내용은 훈민정음이 완성(세종실록 1443년 12월 30일 근거)되기 약 2년 전의 일이나 훈민정음 연구에 기울인 선생의 정성과 세종의 문신(文臣)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품(人品)을 엿볼 수가 있다.

또한 선생의 문집인 태허정집(太虛亭集)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선생은 도덕이 높고 박학다식하며 천품(天稟)이 어질고 겸손하여 항상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말이 적었으며 언제나 신중하여 삼사일언(三思一言)과 삼사일행(三思一行)을 실천하였다. 비록 한 더위에라도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고 온종일 예의에 벗어난 용모를 보이는 일이 없었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독서에 탐닉하였고, 특히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부터 효행은 모든 덕행의 근본이라는 말이 전하는 바 아마도 선생의 행적을 두고 하는 말인 듯 하다. 선생은 학문과 덕행이 탁출(卓出)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행(孝行) 역시 탁이(卓異)한 선비였으니 1458년(세조4년, 10세 때) 부친상을 당하여 시묘살이 중에 있었는데, 그 다음해인 1959년 4월 28일 임금께서 기복(起復: 관직에 복귀)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이 자식된 도리는 물론 조정의 기강에도 벗어나는 일로 옳지 못하므로 응할 수 없다는 진심 어린 글을 3회(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에 걸쳐 왕에게 상서한 내용, 즉 '기복불응상서문(起復不應上書文)'이 세조실록에 실려 있다

2. 최항 선생의 연보

- 1) 1409년(태종 9, 己丑) (음력, 出生年을 1세로 함) 12월 壬辰에 朔寧 馬場面 槐隱村 舊基에서 寧原府院君 崔士柔의 4男으로 出生. 字는 貞父, 號는 幢梁 또는 太虛亭, 諡號는 文靖

- 2) 1434년(세종 16, 26세) 謁聖文科에 장원급제하여 放榜日로 宣敎郎 集賢殿副修撰에 제수되고 知製敎 및 經筵司經에 겸임되었으며, 湖堂에 뽑혀 賜暇讀書를 받음. 또 이해에 ‘資治通鑑訓義’편찬에 참여함.
- 3) 1443년(세종 25, 35세) 세종의 명을 받아 훈민정음 창제를 주관하여 완성함.
- 4) 1444년(세종 26, 36세) 2월에 集賢殿 校理로서 ‘五禮儀注’를 撰進하고 ‘韻會’를 한글로 번역함.
- 5) 1445년(세종 27, 37세) 集賢殿 應敎에 進階되고 ‘訓民正音解例’ 등을 차례로 찬술함.
- 6) 1446년(세종 28, 38세) ‘東方語音’, ‘訓民正音解例’ 등을 차례로 찬진함. 동년 9월 上澣 양력 10월 9일에 훈민정음 28字를 세상에 반포함.
- 7) 1447년(세종 29, 39세) 龍飛御天歌撰進(公의 跋文입), ‘東國正韻’撰述. 文科重試에 2等으로 합격, 集賢殿直提學에 特進되고 世子右輔德을 겸임하여 攝政을 하게 된 세자(뒷날의 文宗)를 도와 書筵官으로 補佐함.
- 8) 1450년(세종 32, 42세) 2월에 문종 즉위함. 정월에 宣慰使로 임명되어 중국 사신과 일본 사신을 접대하고 9월에는 司諫院 右司諫大夫를 겸직하여 言官으로 활동함.
- 9) 1451년(문종 1, 43세) 2월에 司諫院左司諫大夫가 되고 修史官을 겸직하여 ‘고려사’를 改撰하였으며 7월에는 集賢殿副提學에 進階되어 ‘大學衍義’의 주석을 맡고 ‘資治綱目’, ‘通鑑訓義’등을 편찬한 功으로 加資됨.
- 10) 1452년(문종 2, 44세) 5월 단종 즉위함. 2월 ‘世宗實錄’ 편찬 때는 修撰官으로서 참여하고 12월에 승정원동부승지가 됨.
- 11) 1453년(단종 1, 45세) 10월에 承政院都承旨에 올라 계유정란 때 協贊한 功으로 11월에 靖難功臣 1등에 策勳됨. 그러나 公은 靖難에 있어서 功效가 없었다고 ‘功臣의 號’를 삭제하여 줄 것을 奏請함.

○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정난공신(靖難功臣)의 교서(敎書)를 보니 그 1등을 논하여 말하기를 ‘기미(幾微)에 밝아 먼저 제거하였다.[炳幾先除]’고 하였습니다. 무릇 ‘기미에 밝다.’는 것은 기미에 앞서 밝다는 것입니다. 수양대군(首陽大君)과 홍달손(洪達孫)·권람(權擘)·한명회(韓明

膾)라면 가합니다마는, 기타 1등에 올려 있는 자는 모두 이미 계책을 결정하고 ‘역적울’ 전제(剪除)한 뒤에야, 혹 불려서 이르렀고, 또, 병조당상(兵曹堂上)·도진무(都鎭撫) 등과 같은 사람들은 그때를 당하여 역시 처신할 바를 알지 못한 자들인데, 다 같이 상을 받았으니 공이 있는 자와 분별함이 없습니다.

- 도승지 최항(崔恒)과 좌승지 신숙주(申叔舟)등이 피혐(避嫌)하여 말하기를, “신 등은 정난(靖難) 때에 조그마한 공효도 없으므로, 사피(辭避)하려고 생각한 지가 며칠이 됩니다. 지금 사헌부의 말이 진실로 옳으니, 청컨대, 신들의 공신(功愆)의 호(號)를 삭제하여 주소서.” 하였다. (단종실록 권 9)

12) 1454년(단종 2, 46세) 2월에 嘉善大夫吏曹參判에 올라 寧城君에 冊封되고 10월에는 ‘功臣宴曲’ 4장을 撰進하였으며, ‘세종실록’ 편찬을 완성함.

13) 1455년(단종 3, 47세) 윤 6월 세조 즉위. 정월에 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 嘉善大夫 吏曹參判 集賢殿提學 同知經筵春秋館事 寧城君으로서 1等 策勳의 교서가 내려졌으며 2월에 司憲府大司憲에 拜命되고 7월에는 世子侍講院右副賓客을 겸임하였으며 이해 8월에 母親喪을 당하고 9월에 輸忠衛社 同德佐翼功臣 2等に 錄勳되었으며 ‘문종실록’ 편찬에 참여함.

- 대사헌(大司憲) 최항이 모친상을 당하였다. 임금께서 명하여 부의(賻儀)로 쌀과 콩을 아울러 30석, 관곽(棺槨), 종이 100권, 석회 40석, 유둔(油菴) 3부(三部)를 내렸다. (세조실록 권 2 元年 8월 18일, 辛酉)

- 노숙동(盧叔叄)을 대사헌으로 임명하였다. ※이때부터 선생은 모친의 상중이므로 휴직하고 시묘살이를 함.

14) 1456년(세조 2, 48세) 6월 14일(壬子) 司謁 張末同에게 命하여 宣醞과 素膳을 가지고 가서 선생의 廬所에 내렸음.(이 해에는 端宗復位の 정변이 있었음.)

15) 1457년(세조 3, 49세) 11월에 嘉善大夫 戶曹參判에 轉任되고 12월에 또 다시 吏曹參判으로 옮겼으며 이 해에 ‘初學字會諺注’를 撰述함.

- 16) 1458년(세조 4, 50세) 3월에 資憲大夫 刑曹判書에 오르고, ‘新六典’의 초안을 작성하여 올렸으며 이 해에 부친상을 당함.
- 17) 1459년(세조 5, 51세) 임금께서 부친상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선생에게 起復을 命하였으나 그 명령이 자식된 도리는 물론 조정의 기강에도 벗어나 옳지 못하므로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3회(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에 걸쳐 왕에게 상서하여 실록에 재록되어 있음. 5월에 工曹判書가 되고 이때 왕명으로 起復되어 ‘六典’을 비롯, ‘十二駿圖’등을 撰修하였으며 11월에는 正憲大夫에 加資되어 知中樞院事가 되고 藝文館 大提學에 成均館大司成을 겸임함. 이때에 ‘明皇誠鑑’의 歌詞를 한글로 번역하여 올림.
- 18) 1460년(세조 6, 52세) 4월에 ‘兵書’를 註解하고 또 ‘孫子註解’를 校正함. 10월에는 왕과 중궁 및 세자가 황해도와 평안도를 巡幸하게 됨에 따라 都城을 지키는 守相으로서의 摠治留都庶務의 命을 받음.
- 19) 1461년(세조 7, 53세) 6월에 崇政大夫 吏曹判書가 되고 이 때에 梁誠之가 지은 ‘蠶書’를 한글로 번역 간행하였으며 이해에 ‘觀音現相記’, ‘訓辭注解’ 등을 撰修하고 ‘北征錄’을 校正함.
- 20) 1462년(세조 8, 54세) 정월에 다시 知中樞院事가 되고 徐居正과 더불어 ‘東國通鑑’을 撰修하고 ‘定大業保太平歌詞’를 개작함.
- 21) 1463년(세조 9, 55세) 9월에 議政府右參贊이 되어 ‘兵書新註’를 校正하고 申叔舟와 함께 ‘御製諭將說’ 3篇을 주해함.
- 21) 1464년(세조 10, 56세) 7월에 議政府 左參贊에 옮기어 ‘靖難日記’를 撰述하고 9월에는 왕명으로 ‘兵將說註’를 刪定하였으며 이 해에 御製求賢試에 1等으로 합격하여 加資됨.
- 22) 1465년(세조 11, 57세) 左參贊에 世子貳師를 겸임하고 ‘小學’과 ‘四書五經’에 口訣을 정함.
- 23) 1466년(세조 12, 58세) 4월에 崇祿大夫 兵曹判書에 임명되자, 군사 관계는 적임이 아니라고 간절히 사양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아니 함.
- 24) 1467년(세조 13, 59세) 4월에 議政府 左贊成, 5월에 우의정, 7월에 좌의정, 9월에 영의정에 오름. 이 해에 ‘行軍須知’를 註解하고 왕명으로 ‘北征歌詞’ 3章을 撰進함.

- 25) 1468년(세조 14, 60세) 9월睿宗 즉위, 정월에 寧城君에 還封되어 領中樞府事와 領春秋館事에 겸임되고, 세조의 행장을 草輯하였으며 經國大典 詳定所 都提調를 兼任하여 세조 즉위 초에 六典詳定官으로 임명된 이후 오랫동안 연구해온 ‘經國大典’을 完成하고 ‘御馬法’을 諺解하였으며, 9월에는 院相에 오름.
- 26) 1469년(예종 1, 61세) 11월에 성종 즉위, 이 해에 ‘武定寶鑑’을 撰修하였으며 11월에睿宗이 돌아가고 成宗이 卽位하자 ‘經國六典’을 撰進하고 敎書를 撰述함. 12월에 領經筵事 겸임함.
- 27) 1470년(成宗 1, 62세) 6월에 年老身病으로 致仕하기를 奏請하였으나 왕이 不允하고 休暇療養을 下命하였으며, 11월에는 寧城府院君에 進封되고 ‘歷代帝王后妃明鑑’을 撰修하였으며 領春秋館事를 겸임하여 世祖實錄과睿宗實錄 편찬에 참여함.
- 28) 1471년(成宗 2, 63세) 3월에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1等에 策勳되고 10월에 左議政에 再任되었으며 이 해에 ‘懿敬廟玉冊文’을 撰進함.
- 29) 1472년(成宗 3, 64세) 5월에 좌의정에 尙장사임하고 領中樞府事로 遞任.
- 30) 1474년(成宗 5, 66세) 3월에 또 다시 좌의정에 復拜되었다가 4월 28일 享年 66세 운명함.

선생은 조선조 제3대 임금인 태종 9년(1409) 12월에 옛 삭녕(朔寧; 현 연천군 및 철원군) 땅에서 출생하여 세종 16년(1434)에 알성문과(謁聖文科)에서 장원급제함과 동시에 집현전 부수찬으로 제수된 이래 계속 관직에 재임하였다. 조선조 초기의 탁출한 문신으로서 육조(六朝: 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성종조)에 걸쳐 40여 년간을 오직 내직(內職)에서만 벼슬하였으며, 그동안 단 한 번도 탄핵(彈劾)을 받은 일이 없었다. 또한 공신록(功臣錄)에 세 번이나 기록된 충신으로 관직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성종 5년 3월에 좌의정으로 복배(復拜)되어 재임 중 4월 28일 향년(享年) 66세로 운명하시니 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기현(丁峴)에 예

장(禮葬)하였으며, 현재 묘역은 경기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3. 맺음말

선생의 생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 최선을 다한 치열한 삶 속에서 드러난 그 업적을 길이길이 추모 현양함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난날 이처럼 선조들의 최선을 다한 치열한 삶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불편 없이 문자생활을 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 문화 민족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한글날에 대하여 부언한다면 앞으로 한글날이 참다운 국경일로 존중되어 한글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만약 우리 민족에게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하여 보라! 참으로 눈앞이 캄캄할 것이다. 더구나 한글은 세계의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서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익혀서 편하게 일용(日用)할 수 있는 글자이니 그 창제 반포의 기쁨과 새로운 고유 문자를 갖게 된 민족적 자긍심(自矜心)을 어디에 비기랴! 세종의 한글 창제는 참으로 우리 민족이 문화 민족임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선양한 쾌거인 것이다. 한글은 우리의 선조들이 창조한 탁월한 지혜의 산물, 억만년 길이 빛날 민족의 등불이다.